

## 현대는 왜 비코를 주목하는가?

노 윤 래 | 전 한전원자력연료(주) 사장



역사학자인 토인비는 인류 역사상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던 때는 단 하루도 없었다고 술회한 바 있다. 현재 기독교 문명 세계와 비기독교 세계와의 충돌을 문명에 의한 야만의 정복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다. 오늘의 이라크 전쟁도 천 년 전의 십자군 전쟁의 재판이라고도 한다.

그런데 문명과 야만이라는 이분법에 의한 허구를 깨기 위해서는 기독교만을 유일한 종교로 절대화하거나 타종교를 무시하지 말고 모든 종교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것에 근거한 모든 문명을 포용해야 하며 이를 위해 각각의 종교에 대한 근원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하나의 종교 역사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시작된 처음이 가장 이성적이며 보편성을 띄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종교 역사의 근원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한 사람이 비코였으며 “처음으로 돌아가라”는 말은 르네상스를 잇는 그의 학문적 명제이기도 했다.

서울공대 전기공학과 졸업  
한국원자력연구소 연구관  
한국전력공사 근무(1966~  
1994, 최종직위: 영광원자력  
본부장)  
한전원자력연료(주) 근무  
(1994~2000, 최종 직위: 사장)  
서울대, 한양대 강사 역임

### 만인의 정신적 스승 Giambattista Vico

잠바티스타 비코(Giambattista Vico)는 1668년 나폴리에서 출생하여 1744년 사망할 때까지 76년간 나폴리를 떠나본 적이 없는 독특한 삶을 가졌던, 그러나 당대는 물론 그의 사후 200년간 거의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사상이었다.

비코에 대한 평가는 20세기 전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는데 흔히 그를 법학자로 인식하고 있으나 비코는 43년간 수사학 교수로 봉직했을 뿐 법학을 강의한 경험은 없다.

다만 그는 가난한 남부 이탈리아 출신으로 고등 교육을 받지는 못했으나 그 지역의 가톨릭 분위기와 고서점을 운영하는 부친의 덕택으로 엄청난 독서와 사색을 계속할 수는 있었다. 이런 환경에서 독학을 꾸준히 한 결과 비코는 다방면에 걸쳐 전문직을 갖춘 학문의 최고봉에 오르게 되었고 그의 사후에는 많은 진보와 보수, 법학자와 혁명가 뿐 아니라 문학자, 역사가, 사회학자, 경제학자, 지리학자, 심리학자, 등의 정신적 스승이 될 수 있었다.

비코는 그의 학문 연구에 깊은 영향을 끼친 인물로 초기에는 플라톤과 타키투스, 중년에는 베이컨과 그로티우스가 자신의 스승이었다고 자서전에서 밝히고 있다.

비코는 플라톤의 『국가』와 『법률』을 접하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이 윤리학이나 법철학의 기초를 정립하는 데 다소 부족하다고 느꼈으며, 인간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묘사한 타키투스의 역사서를 보고 감명을 받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비코는 플라톤보다는 역사가에, 타키투스보다는 철학자에 가까운 인간형이었다.

비코는 중년에 베이컨이나 그로티우스의 영향을 받았는데 이는 베이컨의 경험주의와 귀납법에 매료되었기 때문이다. 자연 탐구에 있어서 따라야 할 여러 법칙과 귀납법에 의한 학문의 체계화를 서술한 베이컨의 『새로운 방법』은 비코 철학에 큰 영향을 끼쳤다.

비코는 또한 여러 민족의 자연법에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합리성을 철학적 역사적으로 기술한 그로티우스의 국제법에도 흥미를 느꼈다. 보편성과 관련된 철학이 바로 인간 세계의 본성임을 확인한 것이다.

### “처음으로 돌아가라”

비코는 많은 저서를 남겼는데 특히 『보통법』과 『새로운 학문』은 그의 명저



Giambattista Vico

“처음으로 돌아가라”

로 평가되고 있다. 비코는 민족 중심주의와 학자 중심주의의 허구성을 지적했으며 그의 철학관은 넘어진 약자를 일으키고 부축해 주는 적극적 역할을 철학이 담당해야 된다는 것이었다. 그는 신의 섭리가 존재하며 인간이 정념을 조절함으로써 덕(德)을 발휘하게 된다는 것과 영혼의 불멸을 인정한 것이 『새로운 학문』의 원리임을 밝혔다.

20세기의 역사가인 슈팽글러와 토인비의 순환사관은 분명히 비코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 학계의 정설인데, 야만을 극복하기 위해 “처음으로 돌아가라”는 운동은 비코의 명제로서 이는 모든 학문의 출발이 처음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처음’이란 시작을 뜻하는데 이는 인간에 의한 것임을 의미한다고 비코는 설명한다. 그러므로 신의 섭리를 의미하는 ‘근원’과 시작을 뜻하는 ‘처음’은 완전히 구별되어야 하며 이는 서양 중심주의를 배격하는 사이드 사상의 핵심인 동시에 또한 비코 사상의 중심이기도 하다.

야만을 극복하기 위한 운동은 현대 사회에서도 꾸준히 지속되고 있다. 성에 대한 억압에는 페미니즘이, 노동 계급에 대한 억압에는 사회주의가, 아동에 대한 억압에는 자유 교육이, 민족에 대한 억압에는 민족주의가, 문화에 대한 억압에는 다윈주의가, 환경 파괴에 대해서는 생태 운동이 역사적으로 계속되어 왔으며 이것들은 “처음으로 돌아가라”는 운동으로 비코가 현대인에게 자성의 기회를 주는 것이다.

비코가 살았던 시기는 계몽주의가 시대의 주류를 이루었는데 프랑스를 포함한 북구의 계몽 사상이 이성에 바탕을 두었다면 이탈리아 계몽 사상은 감성에 초점이 모아졌다는 특징이 있다.

비코가 시인이며 수사학의 교수직을 오래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풍부한 감성을 소유했기 때문이며 이는 그가 고대사가 이면서 법 철학자가 되는데 큰 영향을 미쳤던 것이다.

비코의 영향은 학문의 모든 분야에 미쳤는데 헤겔의 『정신현상학』과 『시대정신』도 그 중의 하나이다. 역사란 신의 뜻에 의해 설정된다고 보지만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직접적 계기는 인간이라고 주장한 마르크스의 사상도 비코

와 일치한다는 점에서 그의 영향을 받았다.

계몽주의 사상가들은 오직 하나의 문명만이 존재하며 모든 민족은 그들의 발전 과정에서 그 문명을 표상한다고 믿었으나 비코는 이를 부인하면서 모든 민족은 각각 독자적으로 발전해 나간다고 보았고 역사의 순환 속에서 고유의 언어, 관습, 법을 갖게 된다고 주장했다.


### 초심으로 돌아가 안전 관리 수칙을 철저히 익히고 지켜야

인류의 장래는 일련의 발전 단계를 거치면서 독특한 개성을 갖게 되며 각 민족은 스스로의 성장 법칙에 따라 발전하되 외부 요인의 영향을 받아 변할 수 있고, 데카르트의 인식론에 근거한 기계적 인간 관계가 아닌 영혼이 있음을 믿었다는 점에서 비코의 사상은 오늘의 현대인에게도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

과거의 학문 관행과는 달리 창의적이고 독특한 해석 방법으로 새로운 학문을 추구했으며 기계적이고 이성에 의한 획일적 사상 체계를 배격하고 민족 중심주의 사상을 예리하게 비판했다는 점에서 오늘날 비코는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다.

우리 원자력산업계는 비코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한마디로 “처음으로 돌아가라”는 그의 사상적 명제를 이행하는 일이다.

발전소의 평균 연간 이용률이 90%를 상회하고 불시 정지율이 0.5회 이하라는 실적에 안주하지 말고 하찮은 설비의 고장이나 단순한 인적 실수가 대형 사고의 잠재적 원인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체르노빌 참사와 후쿠시마 냉각재 펌프 사고는 계속된 부주의와 매너리즘에 의한 것으로 모든 임직원은 초심으로 돌아가 안전 관리 수칙을 철저히 익히고 지켜야 한다. 

우리 원자력산업계는 비코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한마디로 “처음으로 돌아가라”는 그의 사상적 명제를 이행하는 일이다.

발전소의 평균 연간 이용률이 90%를 상회하고 불시 정지율이 0.5회 이하라는 실적에 안주하지 말고 하찮은 설비의 고장이나 단순한 인적 실수가 대형 사고의 잠재적 원인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